

불자 세상보기

“세월호 참사 국민의 화합으로 극복해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을 불사하며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몸부림쳤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험 장애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행들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안전을 더 중요시하고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뽀뽀 뽀뽀 뽀뽀 위기에 대응해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 보수 여야를 넘어 앞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홍진 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금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나 혼자만 일등을 하려고 했다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일등을 해야 한다. 행여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법륜 스님 “안전과 행복 강조”

김홍진 신부 “근본으로 회귀”

내밀어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공공성 회복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성”이라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며 책임 윤리의 중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7월8일 정동 프란치스코 1층 성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본다. 다만 책임의식만 느끼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전관예우와 관피아 폐해방지, 국가 혁신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진재규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 현상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사행정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문적인 인사전문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며 “최고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인사기관이 조직개편 된 것은 재고되어야 할

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우은근 의장은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 독점의 3대 독점, 관행적으로는 승자독식, 전관독식, 연고독식의 3대 독식의 관행을 과감히 희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3대 독점과 3대 독식 하에서 소통은 단절되었고, 사회통합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고갈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동체는 붕괴되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전관독식 등 관피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관피아 경력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을 해야 한다” 등 6가지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조계종·선학원, 종도가 바라보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자마자 선학원이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 전원이 6월 30일 종단 총무부에 제직원을 제출하는 강수를 뒀고,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다음날인 7월 1일 “종헌 중법거부는 선학원 사유화에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맞불을 냈다.

이후에는 서로간의 공방(攻防)이 이뤄졌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망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종단에 제직원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단의 최고 신성인 종정 진제 스님은 시종을 통해 선학원 이사진의 제직원 제출은 법인 설립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중앙총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및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갖고 선학원 돌출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단의 엄중한 법 처리도 당부했다.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각자들이 설립됐다. 만들고도 10년이 지나서야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면밀히 이어져올 수 있었고, 이 전통은 해방 후 정화운동을 거쳐 현재 조계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선학원을 만든 이는 조계종 스님들이었다. 결국은 조계종과 선학원 모두 한 뿌리라는 것이다.

이제 선학원은 폐쇄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조계종도 원로의원 맹선 스님의 “징계 등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해결방법은 불화를 부르고 결국 갈라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일단 한 대화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봉합되길 바란다.

종교가 갈등 유발처가 돼서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마스에 대한 응징을 이유로 맹폭격을 가했다. 여성과 어린이 희생자가 23명이나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 트위터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자지구의 미사일 폭격을 불꽃놀이로 관망하듯 웃으며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유대인들의 반드시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어야 한다. 철저한 종교인인 그들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 갈등을 즐기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고산문화재단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의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실체한 결과가 나왔지만, 종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35.9% 등 50.5%가 동의했다. 또 68.0%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응답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의 성소가 아닌 갈등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참다운 인간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복락을 빌기 위해서로 종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잇물만 하면 벌어지는 종교 지도자의 각종 부도덕 행위와 종교 다툼은 종교를 불신케하는 대표적 요소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신뢰도와 인지도 역시 낮게 수준이었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한국 종교에게는 절실한 시점이다.

발언대



법륜 스님
한반도평화통일
실천기획단 공동단장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최초의 신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따라온 스페인 예수회 소속 세스페데스(Cespedes, G.) 신부라 한다. 이후 일부 왕래가 있었으나 1784년(정조8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 정약전 등과 같이 신앙 활동을 하니 비로소 교회가 들어서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100여 년 간 대소 박해가 발생했으나 신해박해, 신유박해, 황사영박해 박해사건, 기해박해 그리고 8천여 명의 천주교도가 처형된 병인박해 사건이 대표적 사건이다.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께서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하며, 같은 달 16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24위 시복을 봉행한다고 한다. 시복식(諡福式, beatification)은 “가톨릭에서 성적이 높은 이가 선종(善終)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聖人)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이라 사전은 설명하

교황 행사, 꼭 광화문 광장일 필요있나?

고 있다. 순수한 종교 내부의 행사가 분명하다.

교황의 방한에 대한 최상의 경호와 당연한 경비 및 의전일 것이나, 어찌되었든 시복식이라는 특정종교계의 순수한 내부의식에 국가가 경호와 경비를 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필자의 의문과 문제의 제기는 순수 종교의식을 왜 광화문광장에서 해야 하는지와 정부가 이를 공식 허가하고 순수 종교의식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경호와 경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으나 순수한 종교의식은 종교 건물이나 그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에 거리행진 등 문화적 행사를 하기도 하나 수계식 등 순수한 종교 내부적 의식은 실내에서 내부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상례다. 간혹 평화 기원이나 통일 염원 등 민족적 숙원과 관련된 종교행사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를 떠나 우리 역사와 국민들에게 있어서 광화문 광장이 갖는 상징

과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단지 지나간 역사의 한 장소가 아니라, 현재도 엄연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다. 설왕설래 그 처음 설치과정에 얽힌 이야기야 어떻든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이고,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알리는 국가적 공식행사가 이곳에서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서 구태여 특정종교의 내밀한 의식을, 박해와 순교의 역사에 기반한 그 어떠한 심리에서 봉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서울시의 광화문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정하고 있다.

거듭 문제의 제기의 요지는 조선 역사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순수 종교행사를 봉행해야만 하는가, 이다. 만일 이 시복식을 기화로 금년 가을에 광화문광장에서 불교계가 수계식을 하거나 호국의 상징인 서산대사, 사명대사, 만해 스님과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승군에 대한 천도의를 봉행하고자 하니 허가에 달라 하면 어찌할 것인가?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지적인 곳에서 (예상 인원)100만명 상당의 인파가 운집하고 장시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된다. 경호의 까다로움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 전체가 장기간 상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차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영광이었지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른 국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분명한 대규모 종교행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열린다. 여러 종교 단체 주장들이 교황 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마치 ‘국가적 행사’를 연상시키는 광화문광장의 이 시복식까지도 과연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묻고 싶다. 꼭 광화문광장이어야 했을까? 정부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만 했나? 국민들의 반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위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바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타워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항염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웹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웹빙」을 치세요.